

世之位御相者多烜熇其門客於是華馬皆丹其棘而翠其蓋珠其履而貝其纓莫甚熏炙外煇沾丐餘濕喧聚蛇牛以喧藉一時獨深州相國
 李公不其性澹素不喜膠擾位列三事而門庭常寂然幾乎雀羅可設於是遂廣求山澤之間羅以致之者凡五至乃館而留之管其飲
 吹相與朋翼人有難持者曰天子任用公謂公能以人事居吐哺握髮開東閣延天下賢士以別儀王庭今獨與彼五子者相善愛
 之門下日翱翔其間僕竊為公弗取也公
 我聽之於茶山居有客及門皆衣裳
 李自輕慢我欲以白辭一雙買我為僕
 李一足老至鏡湖自神若冠公前偏冷器
 骨世居青田間遊蓬表乃莊史妄欲立
 自晦今未授公其有山分矣余乃下
 蓋喜其純潔無污軒偉不倫之姿也
 貫一在南粵一自西蕃余素厭倚麗
 忌遇婦孺服錦線者必逐之一者雖

凡宰相擇人不宜一道或取其潔身修行寬偉博大之者或取其文采藻麗機敏使令之才彼二子者雖生長倚紉無山
 野稼穡之態亦自有一技一藝何不見容於相公之門哉余笑而曰善並許館留五客統席者有異趣余願而樂之遂
 自謂曰今天子求賢如渴側席以俟彼容止閒雅不妄趨步者可任之閒局以矜式百僚彼身績卷鋤能徑霜雪者可任之
 民部以察苦隱彼自稱仙骨者雖語言謊在亦可以砥礪流俗而二子者或任之文苑以翻藁皇猷或任之味舌以出納王言
 蓋莫不才行蔚然各適其用吾為相果得人如此薦之朝廷以冀嚮用不亦善乎難者曰諾僕知公館養是五客者亦有寓爾遂

한국을 변화시킨 사상

① 불교 수용과 고대 국가 형성

- 1차시. 삼국 불교 공인의 정치적 함의
- 2차시. 불교와 토착신앙의 갈등과 포섭
- 3차시. '새벽 [始祖]' 원효의 불교 대중화
- 4차시. '화엄 초조' 의상의 전교(傳敎)
- 5차시. 전륜성왕을 자처한 삼국의 국왕
- 6차시. 고대 국가 형성과 불교

初建君請為
 雪夫素乃
 春杵所傷遂
 吾自來仙
 之禍遂劇逆
 守許以蘇期
 瓊問其鄉
 乃一者性多妬
 量之小耶

01 불교 수용과 고대 국가 형성

1. 삼국 불교 공인의 정치적 함의

학습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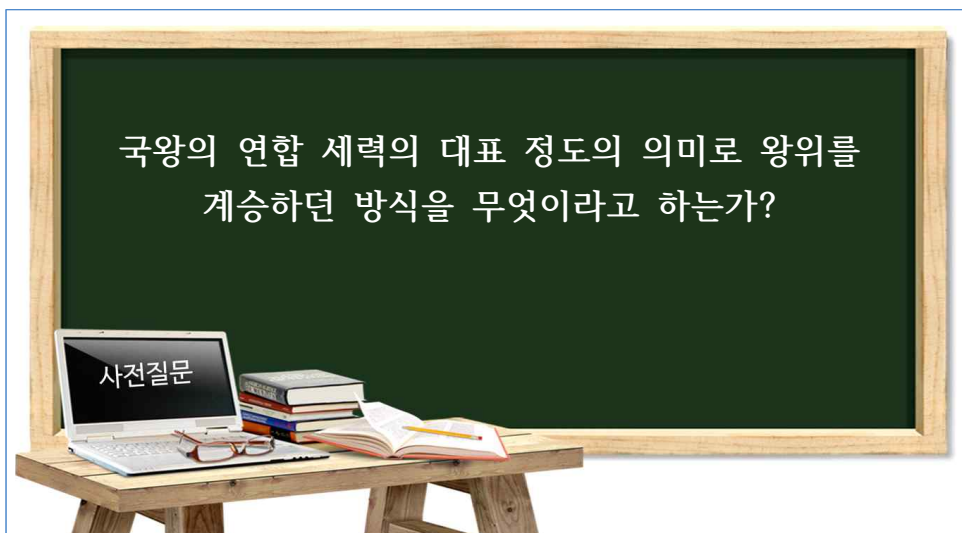
- 삼국이 국왕을 중심으로 불교를 공인한 것이 종교적 이유와 함께 정치적 배경이 포함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다.

1. 들어가기

- 불교 전래 이전에 삼국은 토착신앙을 신앙.
- 토착신앙은 조상신을 포함한 여러 존재를 섬기는 것으로 국왕 뿐만 아니라 각 부(部)의 대표들도 독립적으로 신앙하였음.

2. 준비하기

- 국왕과 각 부의 대표들이 각자 자신들만의 조상신을 신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왕이 정치적으로 압도적인 힘을 가지지 못했던 점도 원인.
- 연합 세력 중 당시 정치적 군사적 세력이 우세한 곳에서 국왕을 선출하던 '형제상속' 방식에서 점차 '부자상속'으로 변화 중.



정답 (형제상속)

3. 학습하기

1) 불교 전래

- 불교는 외래 종교
- 삼국은 외교를 통해 공식적으로 불교를 소개받음.
- 사원의 창건과 승려의 출가를 허용하면서 공인.

2) 삼국의 상황

- 불교 전래 당시 삼국은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화를 강화하던 시기.
- 중국의 법률, 관료 체제 등을 수용하던 시기.

3) 불교 수용의 의미

- 새로운 종교의 전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불교계가 가지고 있었던 기술 등이 함께 전달.
- 남북조시기의 중국 불교의 체제도 전달되는 계기.

4. 요약하기

-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의 국왕 즉위 방식의 변화는 왕권 강화와 연관되어 있음.
- 불교 공인도 왕권 강화의 한 방법으로 이해.